



대한민국은 지난 20년간 '북한'과 '통일'을 어떻게 보았는가?

언론 보도 빅데이터 분석 및 국민 인식 종단연구

박종민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정영주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박사수료
주호준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수료
김현우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

How has the Republic of Korea viewed 'North Korea' and 'Reunification' over the past 20 years?

Sentiment words analysis of media articles and longitudinal study of public opinion

Jongmin Park*

Professor, Department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Kyung Hee University

Young-Ju Jung**

Doctoral Candidate, The Graduate Schoo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Kyung Hee University

Ho Jun Joo***

Master Candidate, The Graduate Schoo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Kyung Hee University

Hyeon Woo Kim****

Master, The Graduate Schoo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Kyung Hee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the language morphemes and emotional words of about 400,000 articles in Naver, including 'North Korea' and 'Reunification' since 2003. Through this, the differences in the linguistic intensity of the article, the frequency of emotional expression, and the direction of emotion (positive and negative)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government (Roh Moo-hyun, Lee Myung-bak, Park Geun-hye + Hwang Gyo-an, Moon Jae-in government) and the factional media (progress/conservative). In addition, the difference in 'attitude toward North Korea and reunification' according to demographic attributes, personal political orientation, survey year, and liberal/conservative government period was analyzed using a 17-year survey of public perception of 1,300 people each year since 2003. As a result of the study, there were many changes in linguistic

* 주저자, 교신저자, jongmin@khu.ac.kr

** storyjenny@naver.com

*** joo4456@khu.ac.kr

**** hwkim93@naver.com

intensity and emotional frequency during the Roh Moo-hyun government. In the Park Geun-hye government, after the Roh Moo-hyun government, the verbal intensity and emotional frequency were higher. However the amount of positive sentiment was most in the order of Park Geun-hye, Moon Jae-in, Roh Moo-hyun, and Lee Myung-bak government. In media reports during the Park Geun-hye government, both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were high, while the attitude toward 'North Korea' and 'Reunification' was the lowest in the public survey (Roh Moo-hyun > Moon Jae-in > Lee Myung-bak > Park Geun-hye government). Regarding the results of public opinion polls, women are more positive about 'North Korea' and more negative about 'Reunification' than men. The higher the level of education and income, the more positive for 'North Korea', and the higher the level of education, the more positive for 'Reunification'. The more recent it came, the more negative it was for 'North Korea' and 'Reunification', and the younger the age, the more negative for 'North Korea'. The political faction of the government only affected the attitude toward 'North Korea,' so the more progressive governments were, the more positive the people were toward 'North Korea.' Looking 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dia's political faction, progressive media responded more sensitively to North Korea's South Korean policies and actions, and inter-Korean relations than conservative media. The most peculiar finding was that the media as a whole had a strong positive sentiment toward North Korea and reunification, the linguistic intensity and emotionality of conservative media were generally higher than that of progressive media, and the positive sentiment was generally higher than that of progressive media.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public opinion polls, the political faction of the government had no influence on the attitude of the people toward 'Reunification,' but it had an effect on the attitude toward 'North Korea'. Related interpretations were discussed.

Keywords: North Korea, Reunification, Sentiment words analysis, Longitudinal study, Public opinion

1. 서론

한반도의 분단 이래로 통일은 언제나 뜨거운 이슈가 되어왔다. 분단 초기를 넘어 1970년대 경제 개발과 남북한 대화 시작, 1980년대 세계적 냉전체제의 붕괴와 독일의 평화적 통일을 바라보며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기대 또한 커져갔고 2000년 들어 진보성향의 김대중 정부가 표방한 대북화해협력정책은 남북 간에 새로운 긍정적 변화의 기류를 만들었고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으로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부터는 북한의 핵실험과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해 남북은 냉각관계가 다시 시작되었고,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 기간에도 역시 북한의 핵실험은 지속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다시 대화의 기류가 시작되어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선언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학계에서 통일, 북한에 대한 언론의 보도경향과 대중의 인식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먼저 보도경향 내용분석 결과는 정부의 성과성에 따라 변화됨이 분석되었다(통일연구원, 2013; 홍성기·하태경·손광주·이종철, 2011). 이러한 언론내용분석 연구들은 주로 미디어프레임 분석이나 의제설정 효과를 다룬 연구들이었다(김재한, 2009; 박홍원, 2001; 이화행·이정기·최진호·정성호·강경수, 2015; 최종환·하진홍, 2016). 최근 들어서는 시계열분석, 네트워크 분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용량 자료의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정영철 외, 2013; 이성우, 2017). 다음 언론보도 경향과 국민여론을 비교분석하는 연구도 시도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한 사회인구학 속성과 정치이념의 영향력을 연구하였다(김재홍, 2003; 이준웅, 2004; 도정은·나은경, 2014). 북한과 통일에 대한 여론인식조사는 대중여론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조사>, <국민 통일의식 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국민의 다양한 인구학적 속성에 따라 조사되어왔다.

본 연구는 데이터의 방대함과 분석의 세밀함으로 기존 통일, 북한에 대한 언론의 보도와 대중 인식 연구결과 전체를 검증하고 미래를 조망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연구주체의 창의성을 담보한다. 크게 두 가지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다. 첫째, 네이버 내 '북한'과 '통일'이 포함된 약 40만여 개의 언론기사의 언어 형태소 및 감성어 분석, 둘째, 매해 1,300명 대상 17년간 '북한'과 '통일'에 대한 대국민인식 데이터의 2차 자료 분석이다. 최근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다양한 언어 내용 분석은 표본의 확장과 언어사용의 감정성 및 관계성 등이 분석 가능하여 언어의 사회적 사용에 대한 새로운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17년간 지속적으로 실시된 한국종합사회조사(KGSS)를 통해 우리사회 '북한'과 '통일'의 대국민 인식 변화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두 가지 2차 자료 조사 분석 결과의 비교는 20년간 '북한'과 '통일'에 대한 미디어의 인식과 공중

의 인식 간의 비교도 가능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우선 2000년 이후 '북한'과 '통일'이 포함된 네이버 전체 기사 내 언어적 강도, 정서적 표현 빈도, 정서의 방향성(긍·부정) 정도의 정부(노무현, 이명박, 박근혜+황교안, 문재인 정부)별 차이와 정파적 언론(진보/보수) 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2000년 이후 매해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북한'과 '통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들(인구학적 속성(성별, 나이, 교육, 소득), 개인정치성향, 조사연도, 정부별(노무현, 이명박, 박근혜+황교안, 문재인 정부))은 어떠한가를 분석하고자 하며 이 두 분석의 비교를 통해 20년간 '북한'과 '통일'에 대한 미디어의 인식과 공중의 인식의 상호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000년 이후 20년간 우리 사회의 정부별, 언론의 정파성별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의 흐름을 파악하고, 정부와 언론에서 제시하는 '통일'의 속성 의제들이 공중이 인식하는 '통일'의 속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통일'이 함의하는 우리 사회의 가치적 엄중함으로 그 실용적 가치를 대변한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20년 동안 약 40만 개의 언론 기사 분석과 약 2만 개의 대국민 인식조사 표본을 근거하여 지난 20년간 '북한'과 '통일'에 관한 거대담론을 정확하게 진단하고자 한다. 더불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절대적이고 숙명적 과제인 '통일'의 미래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2000년 이후 정부별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한반도의 분단 이래로 통일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염원이 되어왔다. 분단 초기에는 세계적으로 이념적 냉전이 지속되어 반공, 방첩 사상이 고조되었지만, 한민족으로서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염원만큼은 식지 않았다. 1970년대 경제개발과 남북한 대화 시작, 1980년대 세계적 냉전체제의 붕괴와 독일의 평화적 통일을 바라보며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기대 또한 커져갔으나 김대중 정부 이전까지 보수성향의 정권에서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은 국내정치 문제, 국제정세, 그리고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맞물려 늘 갈등과 적대감으로 얼룩졌다(신종대, 2013). 그러나 진보성향의 김대중 정부가 표방한 대북화해협력정책은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을 통해 남북 간에 새로운 긍정적 변화의 기류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였고, 2003년 이후의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흐름에 변화를 가져왔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을 계승한 '평화번영정책'을 기반으로 한반도의 평화 증진과 남북 공동번영의 실현 및 동북아 공동번영을 추구한다는 기본전제에 따라 개성공단 건설과 남북경협사무소 개소,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적극적인 교류를 확대하여 남북한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였다(이창현, 2008). 그러나 이 시기에 북한의 NPT 탈퇴와 1차 핵실험 등 도발행동 또한 계속되어 이후 이어진 이명박 정부에서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기본으로 전체 하지만 북한의 선제적 변화, 즉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고 경제 중심의 대북 압박과 설득을 내세우면서 남북간 군사적 대결과 적대적 단절 국면이 이어졌다(박상익, 2012). 이어진 박근혜 정부에서는 취임신년사에서 통일대박을 언급하며 남북관계의 발전을 기대하게 하였으나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북전략의 제시와 실천적 남북교류가 없다는 비판과 더불어 이렇다 할 남북관계의 진전이 없었다(정용하·강성훈, 2015).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진보정권으로의 교체와 함께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확대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북 압박을 병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이승현, 2018).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와 대북정책의 변화와 이에 따른 남북 간의 관계와 사건들은 북한과 통일에 대한 언론보도와 여론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언론기사의 언어적 정서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별 대북정책(North Korea policy)과 남북관계(Inter-Korean relations), 그리고 주요한 북한 관련 사건들(North Korean provocation incidents)을 정리한 내용은 <Table 1>과 같다.

Table1. South Korean governments'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inter-Korean relations since 2003

Government	North Korea policy	Inter-Korean exchange	North Korean provocation incidents
The Roh Moo-hyun gov (2003. 02.25. ~ 2008. 02.24.)	<p>〈Policy of Peace & Prosperity〉 -Succession of Kim Dae-jung's government's policy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Revitaliza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p>	<p>2005. 9.19 Joint Statement/Kaesong Industrial Complex Construction 2007.10.04. The 2nd Inter-Korean Summit/2007 Inter-Korean Summit Declaration</p>	<p>2003.01.10. Withdrawal from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NPT) 2005.02.10. Declaration of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2006.10.09. 1st North Korean nuclear test</p>
The Lee Myung-bak gov (2008. 02.25.~ 2013. 02.24.)	<p>〈Policy of mutual Benefits & co-prosperity〉 -Economic-oriented linkage strategy -Persuasion through pressure toward North Korea</p>	<p>2008.03.27. Deportation of South Korean officials from the Economic Cooperation Office in Kaesong Industrial Complex 2011.07.22. Inter-Korean denuclearization talks held 2011.12. Kim Jong-il died 2012.04 Launch of the Kim Jong-un regime</p>	<p>2008.07.11. The murder of a tourist in Mt. Geumgang 2009.05.25. 2nd North Korean nuclear test 2009.11.10. Battle of Daechong occurred 2010.03.26. ROKS Cheonan sinking 2010.11.23. Bombardment of Yeonpyeong 2013.02.12. 3rd North Korean nuclear test</p>

Government	North Korea policy	Inter-Korean exchange	North Korean provocation incidents
The Park Geun-hye gov (2013. 02.25.~ 2017. 05.09.)	2014.01.06. New Year's press conference (the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Normaliz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through trust formation	2014. Leaders of the Kim Jong-un regime (byungseo Hwang, Ryonghae Choi, Yanggeon Kim) attended the closing ceremony of the Incheon Asian Games	2016.01.06. 4th North Korean nuclear test 2016.02.07. Kwangmyongsong-4 launched 2016.09.09. 5th North Korean nuclear test
The Moon Jae-in gov (2017. 05.10.~ present)	<Two-track policy of dialogue and pressure> -Based on the Kim Dae-jung and Roh Moo-hyun government's engag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2018.04.27. holding an Inter-Korean summit/ Panmunjom Declaration 2018.09.19. Pyongyang Joint Declaration 2018.06.12. the 1st North-American Summit	2017.09.03. 6th North Korean nuclear test 2019.~ Short-range missile launched

3. 통일, 북한에 대한 언론의 보도경향과 대중의 인식에 대한 기존 연구

우리 사회에 정파적 쟁점은 정파적 언론 보도에 영향을 받고, 또 사회구성원 역시 정파적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한다(이현지·박종민, 2015). 북한과 통일에 대한 언론 보도경향 역시 대한민국 정부의 성격이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통일연구원, 2013). 예를 들어 '햇볕정책', '6.29 남북정상회담' 등 활발한 남북교류 정책을 추진했던 김대중 정부와 달리 그 이전의 언론보도는 보수/반공 중심에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논조였다면, 김대중 정부기간 언론보도는 평화지향/상호주의적이며 북한에 우호적인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홍성기 외, 2011). 그리고 북한과 통일에 대한 언론의 보도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은 주로 관련기사에서 나타나는 미디어프레임 분석이나 의제설정 효과를 다룬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박홍원(2001)은 대북정책과 언론-국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미디어프레임 분석을 활용하였고, 김제한(2009)은 북한과 미국 관련 남북갈등의 변화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 노태우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의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우호적 사설과 비판적 사설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최종환·하진홍(2016)의 연구에서도 김대중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 보수와 진보신문들의 통일 관련 보도 논조를 프레임 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는데 김대중 정부시기 보수언론은 '평화정책' 프레임이, 진보언론은 '민족주의' 프레임이 높았고, 박근혜 정부시기는 보수와 진보언론 모두 '실리주의' 프레임이 높게 나타났다.

정부와 언론의 북한관련 보도경향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북한과 통일에 대한 여론인식조사는 대중여론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또한 언론보도의

경향성이 정부의 유형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 행태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경향을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최근의 여론조사 몇 가지를 살펴보면, 연이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북핵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자리 잡은 2013년 실시된 KBS 여론조사에서 북한 핵개발로 인한 남북 간 전쟁 가능성 질문에서는 가능성 없다는 응답이 20대에서 52.8%, 30대에서 71.3%, 40대에서 67.9, 50대에서 56.7%, 60대 이상에서 47.7%로 30대~40대의 응답이 60대 이상에 비해 20%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북핵문제의 확대에도 여론의 남북관계에 대한 불안감은 연령차가 있기는 하나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2018년 8월 발표된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여론 조사>¹⁾ 결과, 83.5%가 남북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64.6%의 응답에서 통일로 인한 이익이 클 것으로 전망하여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0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19 통일의식조사>(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남녀 1,200명)에서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를 항상 넘어섰으나 2007년 63.8%였던 수치는 보수정권을 지나면서 50% 초반을 유지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59.7%까지 올라섰고 2019년에는 53%로 다소 하락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정권의 성향에 따라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가 변화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언론보도 경향과 국민여론을 비교분석하거나 언론보도 프레임과 여론의 대북관련 태도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들을 통해 남북관계의 진전과 분단 상황 극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려는 시도도 계속 되어왔다. 이준웅(2004)은 대중이 언론매체를 이용하는 방식과 언론의 보도프레임이 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언론관련 변수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으나 사회 인구학적 변수나 정치이념, 정치지식 등 개인차 변수들과 함께 작용할 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정은과 나은경(2014)은 북한 관련 언론 보도의 매체 형태(종이신문, TV방송, 인터넷)가 통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는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북한 관련 미디어 이용량 중 종이신문 이용량이 많을수록, 인터넷 이용량이 많을수록 통일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홍(2003)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언론의 논조와 국민여론 간에 괴리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그 원인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언론기사를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지지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당시의 여러 여론조사의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김대중 정부 초기 보수언론은 부정적 논조를 보이다가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민여론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에 영향을 받으며 지지의 방향으로 전환하였으나 보수언론 사주의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 요인이나 국민여

1) 문화체육관광부 의뢰/ 한국리서치 조사,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21명, 95% 신뢰도 수준/ 표집오차 ±2.5%

론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적대적 논조로 돌아섰다. 북한과 미국 관련 남남갈등의 변화 추세에 대한 김재한(2009)의 연구에서도 노태우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의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북한과 미국에 대한 우호적 사설과 비판적 사설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는데, 북한 관련 보도가 진보언론과 보수언론 간에 정부별로 양극화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진보와 보수의 흑백도식화를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들을 고려하면 언론보도 경향이 정권별로 나타나는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특정할 수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언론기사 전체에 대한 보도경향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시계열분석,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포함한 대용량 자료의 언론보도 프레임 분석도 다양(박종민, 2018; 박종민·권구민·박진홍·김필수·조재형, 2017)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영철 외(2013)의 연구에서는 남북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에 대한 언론의 정보생산 내용과 온라인 여론의 대북인식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언론기사의 프레이밍 분석과 함께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였다. 언론기사의 프레이밍을 개성공단에 대한 우호/적대로 나누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사설을 분석하였고, 개성공단에 대한 구글 검색 트렌드와 함께 무작위로 정한 3일치의 트위터 트윗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뉴스의 생산과 여론의 동향 특징을 조사하였다. 이성우(2017)는 남북한의 상호갈등과 협력관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1979~2013년까지 국내외 언론에 보도된 여러 문헌을 빅데이터 형태로 수집하여 매월 단위로 협력과 갈등의 자료를 행위자와 상대방으로 분리하여 평화지수를 산출하고 시계열 분석을 활용하여 정권별 남북의 협력수준을 분석하였다.

이처럼 북한과 통일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의 연구방법이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다각화되고 있으나 데이터의 방대성으로 인해 보도내용 전체를 분석하기보다 분석대상을 사설이나 칼럼에 한정하거나 특정 의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노무현 정부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언론기사를 분석함으로써 언론의 전반적인 언어적 성향을 바탕으로 보도경향을 분석하고, 북한과 통일에 대한 여론조사와의 포괄적인 인식 차이 등을 폭넓게 파악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미가 있을 것이다.

4. 연구문제

본 연구는 20년 동안 약 40만 개의 언론 기사 분석과 약 1만 5천 개의 대국민 인식조사 표본을 근거하여 지난 20년간 '북한'과 '통일'에 관한 거대담론을 정확하게 진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2003년 이후 진보와 보수 정권이 교차되었던 시기 동안 언론기사와 여론의 북한과 통일에 대한 보도 경향과 여론 인식의 양상을 정부별, 언론의 정파성 별로 파악하고, 이러한 빅데이터 내용분석 결과와 매해 실시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보다 엄밀하게 ‘북한과 통일’이라는 중요한 사회 담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본 의제가 가지는 우리 사회의 가치적 엄중함으로 그 실용적 가치를 대변하며, 본 연구가 가져오는 분석적 객관성은 관련 연구의 학술적 논의에 기초분석으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1〉 2003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노무현, 이명박, 박근혜+황교안, 문재인 정부)별 ‘북한과 통일’이 포함된 네이버 내 전체 기사의 언어적 강도, 정서적 표현 빈도, 정서의 방향성(긍부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2〉 2003년 이후 ‘북한과 통일’이 포함된 네이버 내 전체 기사의 언어적 강도, 정서적 표현 빈도, 정서의 방향성(긍부정)은 대한민국 정부(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 황교안, 문재인 정부)별 차이가 있는가?

약 1만 5천 개의 대국민 인식조사 표본 분석인 〈연구문제 1-3〉은 40여만 개 언론 기사를 분석한 〈연구문제1-1〉과 〈연구문제1-2〉의 결과와의 비교이며 재검증이다. 본 연구는 ‘북한과 통일’ 관련 40여만 개의 언론 보도와 약 2만 개의 대국민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의제에 대해 과거 20년간 우리 사회가 어떠한 반응을 보여왔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에 의미가 있다. 즉, 남북관계 관련 언론 보도와 국민 태도의 상호 비교분석을 통한 전체적인 재검증 관점에서 〈연구문제 1-3〉은 〈연구문제 1-1, 1-2〉와 연계된다. 더불어 ‘북한과 통일’에 대한 약 20년간 1만 5천 개의 대국민 인식조사 표본 분석은 본 연구가 처음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년간 4개 정부의 정부별 북한과 통일에 대한 대국민 태도 분석(연구문제 1-3)과 20년간 ‘북한과 통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국민의 속성들도 분석(연구문제 3) 가능하다.

〈연구문제 1-3〉 2003년 이후 매해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북한과 통일에 대한 태도’에 있어 대한민국 정부별(노무현, 이명박, 박근혜+황교안, 문재인 정부) 차이가 있는가?

다음으로 언론의 정치성을 파악하여 정파적 언론(진보/보수)을 선정하였다. 진보매체는 ‘한

겨레, '경향', '오마이'를, 보수매체는 '조선', '중앙', '동아'를 선택하였다.²⁾ 정파적 언론(진보/보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연구문제들을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2-1〉 2003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노무현, 이명박, 박근혜+황교안, 문재인 정부)별 '북한'과 '통일'이 포함된 정파적 언론(진보/보수) 내용의 언어적 강도, 정서적 표현 빈도, 정서의 방향성(긍부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2〉 2003년 이후 '북한'과 '통일'이 포함된 정파적 언론(진보/보수) 내용의 언어적 강도, 정서적 표현 빈도, 정서의 방향성(긍부정)은 대한민국 정부(노무현, 이명박, 박근혜+황교안, 문재인 정부)별 차이가 있는가?

다음으로 〈연구문제 3〉은 본 연구결과의 분석적 함의를 확장하기 위해 '북한과 통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 국민들의 속성을 대국민 인식조사 표본을 근거하여 파악하였다.

〈연구문제 3〉 2003년 이후 매해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북한과 통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들(인구학적 속성(성별, 나이, 교육, 소득), 개인 정치성향, 조사연도, 정부별(노무현, 이명박, 박근혜+황교안, 문재인 정부))은 어떠한가?

5. 연구방법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다. 첫째, 네이버 내 '북한'과 '통일'이 포함된 414,188여 개의 언론기사의 언어 형태소 및 감성어 분석, 둘째, 매해 1,300명 대상 17년간 '북한'과 '통일'에 대한 대국민인식 데이터의 2차 자료 분석이다.

2) 구체적으로 다양한 하위 계열사에 따라, 선택한 매체는 진보(경향신문, 오마이TV, 오마이뉴스, 주간경향, 한겨레, 한겨레21), 보수(동아일보, 조선일보, 신동아, 중앙일보, 주간동아, 주간조선, 월간조선, 월간중앙, 중앙SUNDAY)이며, 〈연구문제1〉에서 포함된 언론사 중 〈연구문제2-1, 2〉를 위해 제외된 언론사는 진보(레이디경향, 스포츠경향), 보수(스포츠조선, 동아사이언스, TV조선, IT조선, 동아오토, 동아일보, 디지털조선일보, 미주중앙일보, 스포츠동아, IT동아, 신동아, 어린이동아, 이코노미조선, 여성동아, 에듀동아, 전북중앙, 조선비즈, 조선에듀, 코리아중앙데일리, 여성조선, 조선닷컴, 헬스조선)이다.

본 연구의 주 분석 방법인 언어 형태소 및 감성어 분석대상은 네이버에서 검색 가능하며, '북한'과 '통일'이 포함된 기사이고 총 수집된 기사개수는 414,188개였다. 데이터 수집 방법은 '2003.01.01.~2019.07.01.'간 '월별'로 네이버뉴스에서 '통일 북한' 키워드를 검색한 뒤 '관련도 순'으로 제시된 뉴스를 수집하였다.³⁾ 다음 네이버뉴스를 통해 크롤링된 기사들의 '뉴스제목', '뉴스일부내용', '언론사', '년도', '개월', '뉴스링크'를 수집하였고, 이후 뉴스의 전체 내용을 수집하고자 뉴스링크로 매체별 사이트를 접속, 뉴스의 본문 전체를 재수집하였다. 결과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는 '뉴스제목', '언론사', '년도', '개월', '뉴스링크', '뉴스일부내용', '기사본문_전처리', '기사별_언어적 강도', '기사별_정서적 빈도', '기사별_정서적 방향성'으로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데이터 정제 방법은 다음의 과정을 거쳤다. 첫째, Python(version 3.7.3)을 통해 사이트별로 수집한 '기사본문' 중 기사와 관계없는 내용을 제외하였다. 가령 기사 앞뒤의 기사 이름과 직책, 또는 매체이름과 지역 등이 해당되며 본문 내용과 관계없는 홍보문구, 사이트의 메뉴 등도 제외하였다. 둘째, 속보성 뉴스를 제외하고자 200자 이하의 기사는 모두 제외하였다. 200자 이상이어야 적어도 한 문단 이상으로 기사가 구성되기 때문이다.

셋째, 기사별로 Konlpy(0.5.1)의 Komoran분석기를 사용하여 형태소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때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별도의 사용자정의 사전을 등록하였다. 예를 들어, 형태소 분석 시 '국무위원장'을 '국무위원장'이 아닌 '국무위원' + '장'으로 잘못 분석할 때가 있으며,

뉴스제목	언론사	년도	개월	뉴스링크	뉴스일부내용	기사본문_전처리	기사별_언어적 강도	기사별_정서적 빈도	기사별_정서적 방향성
0 柳동일 "北 핵실험, 1·2차 파와는 다른 엄중한 상황"	데일리NK	2013	02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	류우익 통일부장관이 1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이 가져올 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핵실험 프...	류우익 장관이 1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이 가져올 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핵실험 프...	0.086444	0.078585	0.013752
1 박근혜 "도발시 단호 대처, 북한 인권 중요"	오마이뉴스	2013	0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	갑사도린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가 통일을 ...	문서진 1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인 서울통의통 당선인 경연실에서 메드 트로이스 미 ...	0.068429	0.071540	0.035770
2 北, 핵실험 임박했 나? 통일부 장관 "엄중한 상황"	프레시안	2013	02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이날 직한 대상 물러조회에서 북한의 이번 핵실험 시도가 지난 ...	북한의 핵실험은 비가 임박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는 가운데 북한이 정보 위성의 ...	0.113419	0.099042	0.001597
					이여 반 단서이우	반규제 대트란 단			

Figure 1. Data format

3) 네이버 검색엔진의 한계로 1회에 4,000개의 크롤링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1회 크롤링의 기준을 월별로 정하여, 월별 최대 4,000개까지 크롤링하였다. 크롤링은 '통일 북한' 키워드 관련도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관련도 정렬로직은 사용자의 검색어('통일 북한')와 기사 간의 유사성, 최신성을 주요 요소로 두고 있다. 이외에 3일 이내 사용자 반응(댓글이나 조회수 등)양과 클릭률, 스펙스 여부 등의 요소가 반영되어 정렬(네이버, 2018)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특정 기사 내 '통일 북한' 키워드 출현 빈도는 기사 선정에 주요 변수가 아닐 수 있다.

사용자정의 사전에 국무위원장을 추가함으로써 이러한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 사용자정의 사전은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키워드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빅카인즈에서 '통일 북한'로 검색한 뒤 총 3,847개의 기사에서 추출한 '기관', '인물', '키워드'에서 도출하였다.

네 번째 과정은 언어적 강도, 정서적 표현 빈도, 정서의 방향성(공부정)의 도출이다. 이를 위해서는 KOSAC의 감정 사전을 사용하였다(김문형·장하연·조유미·신효필, 2013). 기사를 대상으로 감정 사전을 구축하였기에 정확한 분석을 기대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KOSAC은 감정 사전으로, 연구자들이 문장에 강도(Intensity)와 극성(Polarity: 정서적 표현)의 주석을 매겨 형태소 수준에서 취합한 사전이다. 사전은 형태소 수준에서 연결어미, 조사 등의 기능어와 이들의 조합인 엔그램(n-gram)의 형태로 되어 있다(신효필·김문형·박수지, 2016). 문장 수준에서 주석이 매겨지며 출현빈도를 고려하여 형태소별로 강도와 극성 등이 확률적으로 제시된다. 예컨대, '희극/NNG;적/XSN'은 2-그램(2-gram) 형태이며, 긍정적(POS)일 확률이 50%이며 부정적(NEG)일 확률이 50%로 사전에서는 제시된다. 다른 예로 <Figure 2>와 같이 '힘들/VA;르/ETM;것/NNB'은 부정적일 확률이 100%이다. 본 연구는 분석의 정확성을 위해서 공부정 상관없이 100%인 경우만을 대상으로만 한정하여 사전을 활용하였다. 사례수는 적어지지만 보다 명확하게 공부정 값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정서적 표현 빈도와 정서의 방향성은 기사 본문의 정서적 상태와 관련 있는 변인이다. 정서적 표현 빈도는 기사 본문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빈도 높게 서술되어 있는지를 의미하며, 긍정(POS), 부정(NEG), 및 복합(COMP)에 해당하는 형태소의 총 개수를 전체 형태소 개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그리고 정서의 방향성은 기사 본문이 긍정적 정서인지, 부정적 정서인지를 의미하며, 긍정(POS)에 해당하는 형태소 개수에서 부정(NEG)에 해당하는 형태소 개수를 뺀 값을 전체 형태소 개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긍정(POS)에 해당하는 형태소가 기준이기 때문에 양(+)의 값은 긍정적인 정서, 음(-)의 값은 부정적인 정서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언어적 강도(Intensity)가 높다는 것은 의미가 명확한 내용(propositional content)과 언어를 통해 전달되었음을 말한다. 브라닥과 그 동료들(Bradac, Bowers, Coutright, 1979)은 바워즈(Bowers, 1963)가 제시한 강도의 정의를 받아들이고 있다. 바워즈에 따르면, 강도는 '태도가 중립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나타내는 언어의 질(the quality of language which indicates the degree to which the speaker's attitude toward a concept deviates from neutrality)'로 정의된다(p.345). 구체적으로, 믿음에 대한 확신 혹은 감정을 얼마나 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Wilson, 2008)으로 감정(Emotionality)과 구체성(Specificity)이란 두 가지 언어적 특성으로 조작될 수 있다(Hamilton, Stewart,

1993). 해밀턴(Hamilton, 1998)에 따르면, 감정적 강도는 언어의 표현 범위를 순함(mild)에서 부터 강렬함(intense)까지 가능하게 한다. 예컨대 ‘그녀를 화나게 했다’와 ‘그녀를 몹시 화나게 했다’의 두 문장에서 ‘몹시’는 감정적 강도를 조작할 수 있는 언어라 말할 수 있다. 구체성이란 좁은 의미폭이나 간결한 언어들을 사용하여 대상을 보다 간결하게 만드는 정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완곡한 어법, 중의적 표현 등의 모호한 언어 사용은 구체성과 반대편에 있다. 이러한 언어학적 강도는 기사 본문에서 존재하는 높음(HIGH), 중간(MEDIUM), 및 낮음(LOW)에 해당하는 형태소의 개수를 전체 형태소 개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언어적 강도, 정서적 빈도, 정서적 방향성 도출 도식을 아래와 같다.

$$\begin{aligned} \text{기사별 언어적 강도} &= \text{언어적 강도(Intensity) 개수의 합}^4 / \text{'기사본문_전처리'의 형태소 개수}^5 \\ \text{기사별 정서적 빈도} &= \text{언어적 극성(Polarity) 개수의 합}^6 / \text{'기사본문_전처리'의 형태소 개수} \\ \text{기사별 정서적 방향성}^7 &= (\text{긍정적 언어(POS)} - \text{부정적 언어(NEG)}) / \\ &\quad \text{'기사본문_전처리'의 형태소 개수} \end{aligned}$$

이해를 돕고자 구체적인 계산 과정을 살펴보면, ‘서울 진행 중인 회담이 어느 정도 진전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며 우리가 참여를 제의했으나 북쪽에서 강한 부정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의 문장은 총 45개 형태소 개수로 구성된 문장이다. 이 형태소들을 강도 사전과 극성 사전에 투입하면, 언어적 강도 사전에서는 총 4개(‘자연/NNG, 해결/NNG, 참여/NNG, 강하/VA’)의 형태소가 검출되었고, 극성 사전에서는 총 5개(‘자연/NNG, 해결/NNG, 참여/NNG, 강하/VA, 부정/NNG’)의 형태소가 검출되었다. 극성 사전에서 검출된 형태소는 다시 긍정적 단어 4개(‘자연/NNG, 해결/NNG, 참여/NNG, 강하/VA’)와 부정적 단어 1개(‘부정/NNG’)로 구분된다. 따라서 해당 문장의 언어적 강도는 $0.09 (= 4/45)$ 이며, 정서적 빈도는 $0.11 (= 5/45)$ 으로, 마지막으로 정서적 방향성은 $0.07 (= 4/45 - 1/45)$ 로 계산되었다.

또 다른 예시로, “북한은 신미양요를 병인양요 1866 이래 미국이 아시아 팽창정책의 하나로 추진했던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투 상황에 대한 과장이 많고 왜곡하는 경향이 심하다고

4) 기사 본문에서 존재하는 HIGH, MEDIUM, LOW의 합으로 구성된다(김문형 외, 2013). 각각은 언어적 강도의 높 낮이를 나타낸다.

5) 예) 나는 밥을 먹는다 → “나/Noun” + “는/JX” + “밥/NNG” + “을/JKO” + “먹/VV” + “는다/EC” 의 형태소 개수는 6개

6) 기사 본문에서 존재하는 COMP, POS, NEG의 합으로 구성된다(김문형 외, 2013).

7) 양(+)의 값이면 긍정적, 음(-)의 값이면 부정적이다.

소개했다”의 문장은 총 47개 형태소 개수로 구성된 문장이다. 이 형태소들을 강도 사전과 극성 사전에 투입하였으며, 강도 사전에서는 총 5개(“추진/NNG, 침략/NNG, 경향/NNG, 소개/NNG”)의 형태소가 검출되었고, 극성 사전에서는 총 6개(“침략/NNG, 행위/NNG, 규정/NNG, 상황/NNG, 과장/NNG, 소개/NNG”)의 형태소가 검출되었다. 극성 사전에서 검출된 형태소는 다시 긍정적 단어 2개(“규정/NNG, 소개/NNG”)와 부정적 단어 4개(“침략/NNG, 행위/NNG, 상황/NNG, 과장/NNG”)로 구분되었다. 따라서 해당 문장의 언어적 강도는 0.11(= 5/47)이며, 정서적 빈도는 0.13(= 6/47)으로, 마지막으로 정서적 방향성은 -0.04(= 2/47 - 4/47)로 계산되었다. 결과적으로 기사본문의 언어적 강도가 높아지는 것은 중간적 표현에서 점점 ‘명확하고 구체적인 전달’이 강해지는 것을 의미하며, 언어적 극성의 빈도가 높다는 것은 정서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으며, 정서의 방향성을 통해서는 기사 본문을 긍정적과 부정적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ngram	freq	COMP	NEG	NEUT	None	POS	max.value	max.prop
0	가*/JKS	1	0.0	0.0	0.0	0.0	1.0	POS	1.0
1	가*/JKS;있*/VV	1	0.0	0.0	0.0	0.0	1.0	POS	1.0
2	가*/JKS;있*/VV;있*/EP	1	0.0	0.0	0.0	0.0	1.0	POS	1.0
3	가*/VV	3	0.0	0.0	0.0	0.0	1.0	POS	1.0
4	가*/VV;L 다*/EF	1	0.0	0.0	0.0	0.0	1.0	POS	1.0
...
16357	힘들*/VA;≡/ETM;것*/NNB	1	0.0	1.0	0.0	0.0	0.0	NEG	1.0
16358	힘들*/VA;≡/ETM;≡/NNB	1	0.0	1.0	0.0	0.0	0.0	NEG	1.0

Figure 2. Polarity Dictionary (KOSAC)

	ngram	freq	High	Low	Medium	None	max.value	max.prop
0	가*/JKS	1	0.0	0.0	1.0	0.0	Medium	1.0
6	가격*/NNG	3	0.0	0.0	1.0	0.0	Medium	1.0
9	가꾸*/VV	1	0.0	0.0	1.0	0.0	Medium	1.0
10	가능*/NNG	1	0.0	0.0	1.0	0.0	Medium	1.0
11	가능*/NNG	1	0.0	0.0	1.0	0.0	Medium	1.0
...
16357	힘겹*/VA;계/EC;버티*/VV	1	0.0	0.0	1.0	0.0	Medium	1.0

Figure 3. Intensity Dictionary (KOSAC)

둘째, 17년간 ‘북한’과 ‘통일’에 대한 대국민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문제1-3〉, 〈연구문제3〉을 해결하기 위해 대국민 인식조사의 2차 자료 관련 2003년부터 전국적으로 수행되어 온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의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 데이터는 현재 2003년 이후 매해 1,300명 대국민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해마다 북한에 대한 태도, 통일에 대한 태도, 미디어 이용량 등 다양한 인구학적 속성을 측정하여 17년간 우리 사회 ‘북한’과 ‘통일’의 대국민 인식변화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17년간의 네이버 기사 분석과 17년간의 대국민 인식 분석 결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쟁점인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한 지난 20년간의 사회인식과 변화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분석이 가능하다.

6. 연구결과

1) 연구문제 1-1 결과

2003년 이후 정부(노무현, 이명박, 박근혜+황교안, 문재인 정부)별 ‘북한’과 ‘통일’이 포함된 네이버 내 전체 기사의 언어적 강도, 정서적 표현 빈도, 정서의 방향성(긍·부정) 중 먼저 언어적 강도(Figure 4)를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기간에는 시기에 따라 가장 높은 언어적 강도(2005년)와 함께 낮은 언어적 강도(2006년)를 나타냈고, 박근혜 정부기간의 언어적 강도는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기간에는 언론기사의 언어적 강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언어적 강도가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대한민국 정부별 ‘북한’과 ‘통일’이 포함된 네이버 내 전체 기사의 정서적 빈도분석 결과(Figure 5), 노무현 정부기간 내의 2005년 기사에서 가장 높은 정서적 빈도를 보이는 시기가 나타났고, 다음으로 박근혜 정부기간에서 높은 정서적 빈도를 나타냈다. 이명박 정부기간에는 언어적 강도의 결과 유사하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정서적 빈도를 보였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기간동안은 전체 기사의 정서적 빈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한민국 정부별 ‘북한’과 ‘통일’이 포함된 네이버 내 전체 기사의 정서적 방향성을 살펴보면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모두에서 긍정적 정서성이 부정적 정서성보다 높게 나타났다(Figure 6). 그러나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 비해 박근혜 정부에서 긍정적 정서성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고, 현재의 문재인 정부와 유사한 긍정적 정서성을 보이고 있다. 반면 부정적 정서성은 전체 정부별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부정적 정서성이 나타나 박근혜 정부기간 언론기사에서 긍정적 정서성과 부정적 정서성이 모두 높은 양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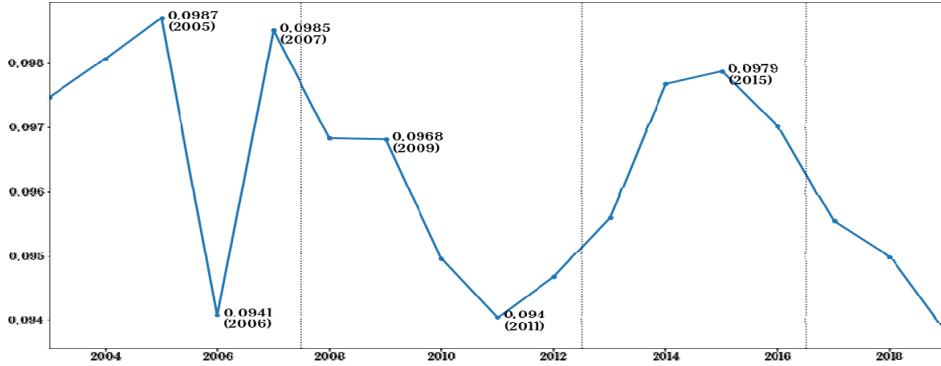


Figure 4. Language intensity frequency of news reports toward 'North Korea & Reunification' by four governments from 2003 to 2019 (by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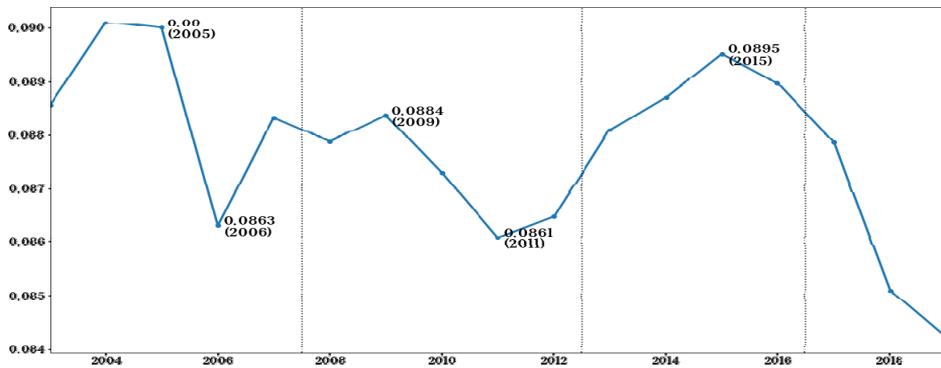


Figure 5. Emotional expression frequency of news reports toward 'North Korea & Reunification' by four governments from 2003 to 2019 (by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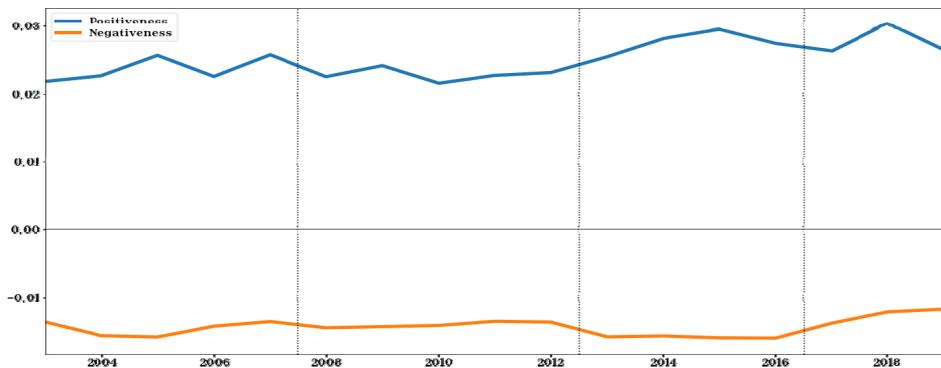


Figure 6. Emotional polarity directivity(negativeness/positiveness) frequency of news reports toward 'North Korea & Reunification' by four governments from 2003 to 2019 (by year)

2) 연구문제 1-2 결과

2003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별 '북한'과 '통일'이 포함된 네이버 내 전체 기사의 언어적 강도, 정서적 빈도와 방향성이 대한민국 정부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1-1>을 통계적 의미의 명확한 차이를 파악하는 의미도 있었다. 정부별 기사의 개수와 기술통계량 및 분산분석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정부별 기사 개수를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과 '통일'에 대한 기사가 가장 적었고,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많은 기사 개수를 보였다. 언어적 강도와 정서적 빈도의 평균에서도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서적 방향성의 경우 긍정적 방향성의 평균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고, 박근혜 정부기간 기사들은 부정적 방향성에서도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정부별 언어적 강도, 정서적 빈도, 정서적 방향성(긍정/부정)의 평균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매우 높은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특히 긍정적 방향성의 F 값(1067.19)이 매우 높게 나타나 '북한'과 '통일'이 포함된 네이버 내 전체 기사의 긍정적 정서 방향성이 정부별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 Descriptiveness and Results of ANOVA on Language Intensity, Emotional Frequency, Polarity Directivity of News Reports toward 'North Korea & Reunification' by Four Governments

Government	N	Language Intensity		Emotional Frequency		Emotional Directivity positive			Emotional Directivity negative				
		mean	ss	mean	ss	mean	ss	n	mean	ss	n		
The Roh	59154	.097	.023	.089	.021	.024	.017	42427	-.015	.012	13827		
The Lee	97780	.095	.023	.087	.021	.023	.019	64639	-.014	.012	28594		
The Park/Hwang	150753	.097	.030	.089	.029	.028	.022	106611	-.016	.015	34586		
The Moon	106501	.095	.031	.086	.031	.028	.022	80527	-.013	.013	19191		
Total	414188							294204			96198		
		Source		DF		Sum sq		Mean sq		F		p	
Language Intensity	Governments		3		.433		.144		184.80		.000		
	Residuals		414184		323.59		.001						
Emotional Frequency	Governments		3		.606		.202		277.38		.000		
	Residuals		414184		301.73		.001						
Emotional Directivity_pos	Governments		3		1.361		.454		1067.19		.000		
	Residuals		294200		125.07		.000						
Emotional Directivity_nega	Governments		3		.121		.040		232.25		.000		
	Residuals		96194		16.71		.000						

3) 연구문제 1-3 결과

2003년 이후 매해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북한에 대한 태도'와 '통일에 대한 태도'가 대한민국 정부별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북한에 대한 태도’는 박근혜 정부기간에 평균이 낮게 나타났고, 정부별 여론조사대상의 ‘북한에 대한 태도’의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통일에 대한 태도’ 또한 박근혜 정부기간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편이었고, 정부별 여론조사대상의 ‘통일에 대한 태도’의 평균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F값의 크기는 ‘북한에 대한 태도’의 결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북한’과 ‘통일’에 대한 태도는 동일하게 노무현 > 문재인 > 이명박 > 박근혜 순으로 긍정적이었다.

Table 3. Results of ANOVA on Attitude toward ‘North Korea’ and ‘Reunification’

			M (‘N’/‘U’)		SD (‘N’/‘U’)		N
Governments	The Roh		2.70	3.08	.90	.85	3907
	The Lee		2.41	3.00	.94	.89	6711
	The Park/Hwang		2.28	2.96	.93	.91	3474
	The Moon		2.67	3.05	.87	.85	845
Total			2.47	3.01	.94	.89	14937
Source	SS (‘N’/‘U’)		DF	mean sq (‘N’/‘U’)		F (‘N’/‘U’)	
Governments	383.34	31.64	3	127.78	10.55	150.51***	13.52***
Residuals	12677.92	11653.40	14933	.85	.78		
Total	104228.00	147146.00	14937				

*** $p < .001$

4) 연구문제 2-1 결과

2003년 이후 각 정부별로 ‘북한’과 ‘통일’이 포함된 언론기사의 언어적 강도를 보수와 진보 매체 별로 분석한 결과(Figure 7), 보수성향의 언론의 언어적 강도는 이명박 정부기간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명박 정부 중반 이후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박근혜 정부 초기에 다시 높게 나타났고, 문재인 정부까지 대체로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진보성향 언론의 언어적 강도는 노무현 정부 초기에는 보수성향보다 높은 언어적 강도를 보이다가 2006년 최저점으로 떨어졌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기간에 진보성향 언론의 언어적 강도가 점차 높아져서 박근혜 정부 후기에 보수성향 언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언어적 강도는 보수언론의 언어적 강도가 진보 언론에 비해 높았고, 문재인 정부기간에서만 진보언론의 언어적 강도가 보수언론에 비해 높았으나, 다른 정부 기간과 달리 2년간의 분석결과이므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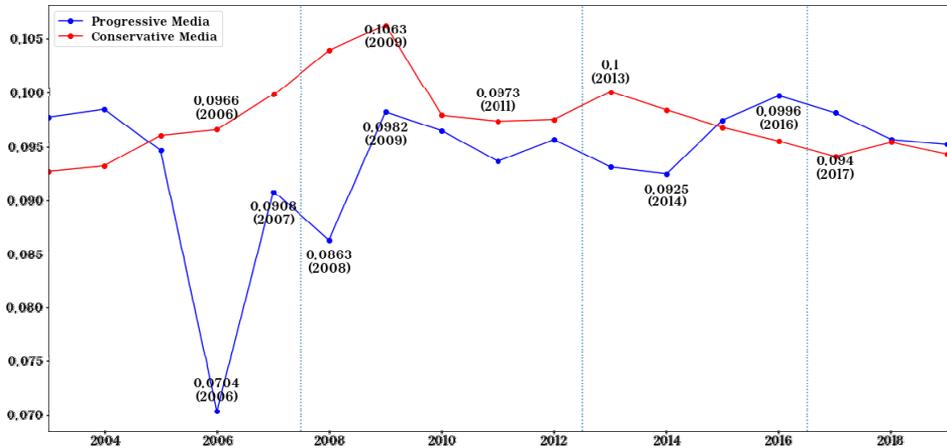


Figure 7. Language intensity of two partisan(progressive/conservative) media toward 'North Korea and Reunification' by four governments from 2003 to 2019 (by year)

보수와 진보 언론기사의 정서적 빈도를 정부별로 살펴보면(Figure 8) 보수성향 언론의 정서적 빈도 또한 이명박 정부기간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박근혜 정부 초기에 다소 높아졌다고 다시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진보성향 언론의 정서적 빈도도 노무현 정부 후반에 들어 급격히 낮아졌다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기간에 높은 수준을 보이고 특히 박근혜 정부 후반에는 보수성향 언론에 비해 정서적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즉, 매체의 정파적 성향에 따른 언어적 강도와 정서적 빈도는 정부별로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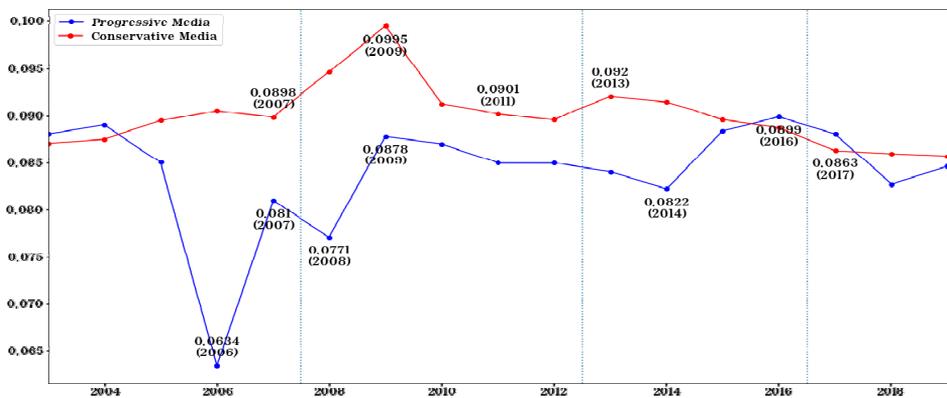


Figure 8. Emotional expression frequency of two partisan(progressive/conservative) media toward 'North Korea and Reunification' by four governments from 2003 to 2019 (by year)

언어적 강도와 정서적 빈도의 그래프 흐름은 유사했다. 언어의 정서적 빈도 역시 전반적으로 보수언론이 높았으며, 단지 노무현 정부 초기와 박근혜 정부 마지막과 문재인 정부 초기에서만 진보언론의 정서적 빈도가 일시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었다.

보수와 진보 언론기사의 정서적 방향성을 정부별로 살펴보면(〈Figure 9〉) 언론의 긍정적 방향성은 모든 정부에서 보수언론이 진보언론에 비해 높은 패턴이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진보언론의 긍정적 방향성이 보수언론에 비해 높았으나,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한적인 기간의 분석만 이루어져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언론의 부정적 방향성은 같은 시기 정부의 정파성과 특별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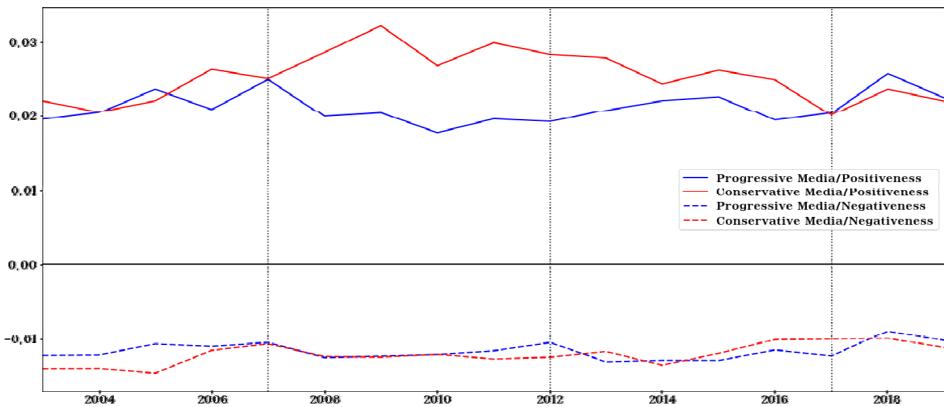


Figure 9. Emotional polarity directivity(negativeness/positiveness) frequency of two partisan media toward 'North Korea and Reunification' by four governments from 2003 to 2019 (by year)

5) 연구문제 2-2 결과

2003년 이후 '북한'과 '통일'이 포함된 정파적 언론(진보/보수) 내용의 언어적 강도, 정서적 표현 빈도, 정서의 방향성(긍·부정)의 정부(노무현, 이명박, 박근혜+황교안, 문재인 정부)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정파적 언론(진보/보수)의 언어적 강도, 정서적 표현 빈도, 긍정적 정서 방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였다. 다만 정파적 언론(진보/보수)은 부정적 정서 방향성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123$). 언어적 강도 관련,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보수언론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진보언론의 언어적 강도가 높았다. 또한 정서적 표현 빈도는 4개의 정부 모두에서 보수언론의 빈도가 진보언론보다 높았다. 긍정적 정서의 방향성에서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보수언론이 높았던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진보언론의 긍정적 방향성이 높았다.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부정적 정서 방향성의 정파적 언론(진보/보수)의 차이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언어적 강도와 정서적 표현이 전반적으로 보수언론에서 높았던 것이 특징적 결과였다. 노무현 정부에서 보수언론의 '북한'과 '통일'에 대한 긍정적 정서 방향성이 진보언론에 비해 높았던 것도 특징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빈도분석을 통해 살펴본 위 <연구문제 2-1>의 결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기사 내 언어적 특징에 대한 정부와 정파적 언론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효과의 분석은 17년이라는 분석 기간의 방대함으로 인해 <연구문제 2-1>의 빈도분석 결과를 통해 제시하였다.

Table 4. Descriptiveness and Results of ANOVA on Language Intensity, Emotional Frequency, Polarity Directivity of Two Partisan Media Reports toward 'North Korea & Reunification' by Four Governments

Government	Media	N	Language Intensity		Emotional Expression Frequency		Emotional Directivity_positive			Emotional Directivity_negative		
			mean	ss	mean	ss	mean	ss	n	mean	ss	n
The Roh	con	3690	0.096	0.021	0.089	0.021	0.024	0.026	2516	-0.013	0.010	1038
	pro	8759	0.090	0.033	0.081	0.030	0.022	0.016	6075	-0.012	0.001	1731
The Lee	con	4372	0.100	0.029	0.093	0.030	0.029	0.041	3060	-0.012	0.010	1185
	pro	7658	0.094	0.024	0.085	0.022	0.019	0.014	5193	-0.012	0.010	2007
The Park/Hwang	con	3337	0.098	0.024	0.091	0.024	0.026	0.033	2493	-0.012	0.009	754
	pro	6331	0.095	0.023	0.086	0.022	0.021	0.015	4349	-0.013	0.010	1675
The Moon	con	3909	0.095	0.024	0.086	0.024	0.022	0.021	2866	-0.011	0.009	917
	pro	4160	0.096	0.020	0.085	0.018	0.023	0.016	3380	-0.011	0.010	688
Total		42216							29932			9995

	Source	DF	Sum sq	Mean sq	F	p
Language Intensity	Government(A)	3	0.154	0.051	76.396	.000
	Media orient(B)	1	0.114	0.114	169.730	.000
	A x B	3	0.088	0.029	43.788	.000
	Residuals	42208	28.274	0.001		
Emotional Expression Frequency	Government	3	0.125	0.042	68.859	.000
	Media orient(B)	1	0.314	0.314	517.580	.000
	A x B	3	0.079	0.026	43.503	.000
	Residuals	42208	25.592	0.001		
Emotional Directivity_pos	Government	3	0.001	0.000	0.624	.599
	Media orient(B)	1	0.113	0.113	226.891	.000
	A x B	3	0.112	0.037	74.833	.000
	Residuals	29924	14.961	0.001		
Emotional Directivity_nega	Government	3	0.003	0.001	9.378	.000
	Media orient(B)	1	0.000	0.000	2.375	.123
	A x B	3	0.002	0.000	6.488	.000
	Residuals	9987	0.960	9.6156E-5		

6) 연구문제 3 결과

2003년 이후 매해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북한에 대한 태도'가 인구학적 속성, 개인정치성향, 조사연도, 진보/보수 정부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 과 <Table 6>과 같다. '북한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 인구학적 속성(성별, 연령, 교육, 수입), 조사연도, 정치성향, 진보/보수 정부, 통일에 대한 태도 모두가 '북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에 긍정적인수록, 성별은 여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수입이 많을수록 '북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영향력은 '통일'에 대한 태도, 성별, 교육, 수입 순이었다. 반면, 정부의 정파성, 개인의 정치성향, 조사의 최근성, 연령 순서로 '북한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정부의 보수성이 높을수록, 개인 정치성향이 보수적일수록, 조사가 최근에 근접할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북한에 대한 태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

Table 5. Descriptiveness and Correlations

Variables	M	SD	1	2	3	4	5	6	7	8
1. attitude for North Korea	2.47	0.94	1							
2. attitude for Reunification	3.01	0.89	.22***	1						
3. year of survey	2010.21	3.87	-.13***	-.04***	1					
4. political orientation	3.01	0.99	-.15***	-.10***	-.06***	1				
5. gender	1.53	0.50	.03***	-.13***	-.00	.02**	1			
6. age	45.18	16.38	-.16***	.15***	.15***	.14***	.02**	1		
7. education	3.57	1.54	.16***	.01	.01	-.11***	-.17***	-.58***	1	
8. income	8.03	5.171	.10***	-.01	.14***	-.06***	-.04***	-.28***	.46***	1
9. government (con2/pro1)	1.68	0.47	-.16***	-.05***	.45***	-.00	-.01	.05***	.01	.09***

Note. N = 14,937, *** $p < .001$, ** $p < .01$.

Table 6.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Attitude toward 'North Korea'

Predictor	B	β	SE	t	p
Constant	33.20		4.25	7.82	.000
Year of survey	-0.02	-0.06	0.00	-7.26	.000
Political orientation	-0.10	-0.11	0.01	-13.95	.000
Gender	0.15	0.08	0.02	10.19	.000
Age	-0.01	-0.10	0.00	-10.56	.000
Education	0.05	0.08	0.01	7.63	.000
Income	0.01	0.05	0.00	6.25	.000
Government(con/pro)	-0.24	-0.12	0.02	-14.24	.000
Attitude for Reunification	0.24	0.23	0.01	28.82	.000

$F = 283.69$, $p = .000$, $R^2 = .13$, $\Delta R^2 = .13$

다음 여론조사 결과에서 ‘통일에 대한 태도’가 인구학적 속성, 개인정치성향, 조사연도, 진보/보수 정부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8) ‘북한에 대한 태도’, 연령, 교육이 높을수록 ‘통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즉, 통일에 대한 긍정성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북한에 대한 호감도, 연령, 교육 순서였다. 반면 여성일수록, 개인의 정치적 성향, 조사의 최근성 순서로 ‘통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었다. 즉, 남성보다 여성이, 개인 정치성향이 보수적일수록, 조사가 최근에 근접할수록 ‘통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었다.

Table 7.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Attitude toward ‘Reunification’

Predictor	B	β	SE	t	p
Constant	26.83		4.05	6.63	.000
Year of survey	-0.01	-0.05	0.00	-6.05	.000
Political orientation	-0.08	-0.09	0.01	-11.55	.000
Gender	-0.23	-0.13	0.01	-16.41	.000
Age	0.01	0.26	0.00	27.01	.000
Education	0.05	0.09	0.01	8.53	.000
Income	0.00	0.00	0.00	0.11	.912
Government (con/pro)	-0.01	-0.00	0.02	-0.36	.716
Attitude for North Korea	0.22	0.23	0.01	28.82	.000

F = 252.20,
p = .000,
R² = .12,
ΔR² = .12

7.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2003년 이후 ‘북한’과 ‘통일’이 포함된 네이버 내 약 40만여 개 기사의 언어 형태소 및 감성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노무현, 이명박, 박근혜+황교안, 문재인 정부)와 정파적 언론(진보/보수)에 따른 기사 내 언어적 강도, 정서적 표현 빈도, 정서의 방향성(긍·부정)의 차이가 분석되었다. 더불어 2003년 이후 매해 1,300명 대상 17년간의 대국민 인식 설문 분석을 이용하여 인구학적 속성, 개인 정치성향, 조사연도, 진보/보수 정부 시기에 따른 ‘북한과 통일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분석되었다. 결과분석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들은 <Table 8>에 정부별, 연도별로 제시하였다.

8) 분석 결과 ‘통일에 대한 태도’에 영향력이 없는 개인 수입(income)을 제거한 후 ‘정부의 정파성’ 영향력 변화를 보기 위해 재분석한 Model2에서도 역시 ‘정부의 정파성’은 변함없이 종속변인에 영향력이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 수입(income)도 포함된 Model1으로 최종 분석하였다.

Table 8. North Korea Policies by Governments and Critical Incidents that affected inter-Korean relations

Period	Feb. 2003 ~ Feb. 2008	Feb. 2008 ~ Feb. 2013	Feb. 2013 ~ May. 2017	May 10th, 2017 ~ Present
Critical Incidents	<p>Aug 15th, 2005 (8-15 Inter-Korean Joint Event) Aug 26th (The 11th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Sep 13th (The 16th Inter-Korean Ministerial Meeting) Jul 5th, 2006 (Taepodong-2 Missile Launch) Oct 9th (The 1st Nuclear Test of North Korea) Feb 13th, 2007 (The 4th Inter-Korean Sports Talk) Feb 27th (The 20th Inter-Korean Ministerial Meeting) Mar 27th (The 5th Video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Apr 10th ~ Apr 13th (The 8th Inter-Korean Red Cross Talks) May 9th ~ May 14th (The 15th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Aug 4th (Inter-Korean Summit) Dec 5th (Start of Kaesong Tour)</p>	<p>Mar 27th, 2008 (Deportation of South Korean Officials from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Consultation Office) Jul 11th (The Murder of South Korean Tourist at Mount Geumgang) Apr 5th, 2009 (Kwangmyongsong-2 Satellite Launch) May 25th (The 2nd Nuclear Test of North Korea), Nov 10th (The Naval Battle of Daecheong) Mar 26th, 2010 (ROKS Cheonan Sinking) Nov 23rd (Bombardment of Yeonpyeong Island) Apr, 2012 (GPS Disruption / Attempt to Manipulate the Presidential Election etc.) Feb 12th, 2013 (The 3rd Nuclear Test of North Korea) Mar 5th (Annulment of the Armistice Agreement)</p>	<p>Mar 24th, 2014 (North Korean Drone Crash) Aug 10th (Yeoncheon Propaganda Leaflet Source Destruction Incident) Dec 15th KHNP (Hacking Case) Oct 4th, 2015 (Wooden-boxed Mine Explosion in DMZ) Oct, 20th (Bombardment of Western Border) Jan 6th, 2016 (The 4th Nuclear Test of North Korea), Feb 7th (Kwangmyongsong-4 Satellite Launch) Feb 10th (Shutting Dow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Sep 9th (The 5th Nuclear Test of North Korea)</p>	<p>Sep 3th, 2017 (The 6th Nuclear Test of North Korea) Apr 27th, 2018 (Inter-Korean Summit Panmunjom Declaration) Sep 19th (The 3rd Inter-Korean Summit Pyongyang Joint Declaration) Jun 12th (DPRK-USA Singapore Summit) After 2019 (Short-range Missile Launches)</p>
	North Korea Policies	Roh Moo-hyun Government (The Policy of Peace and Prosperity)	Lee Myung-bak Government (The Policy of Mutual Benefits and Common Prosperity)	Park Geun-hye Government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연구결과, 기사의 언어적 강도와 정서적 빈도 결과를 정부 시기별로 보면, 우선, 노무현 정부 기간에 변화가 가장 극적이었다. 2005년⁹⁾에 두 수치 모두 가장 높았고, 2006년¹⁰⁾이 최하

점으로 급강하였다가, 다시 2007년¹¹⁾을 기점으로 급반등하였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하며 2005년 9월 개성공단 건설, 2007년 10·4남북정상회담 등 대화와 협력의 노력을 지속하였던 반면, 북한은 2003년 핵확산방지조약 탈퇴, 2005년 핵무기보유선언, 2006년 1차 핵실험 등 국내외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는 도발적 행동을 감행했던 시기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다음 이명박 정부기간에 두 수치 모두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4년 내내 하강세였다가 2011년(김정일 사망, 12월 9일)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다음 박근혜 정부에서는 노무현 정부 다음으로 언어적 강도와 정서적 빈도가 높았다. 이명박 정부 이후 상승하던 수치가 2015년(8월 4일, DMZ복합지뢰 매설사건, 8월 20일, 서부전선 포격사건)을 기점으로 상승이 하강으로 급격하게 꺾이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어지는 하강세가 두 수치 모두 계속해서 2019년 7월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전체 기사의 정서적 방향성을 보면, 모든 정부에서 긍정적 정서성이 부정적 정서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긍정적 정서성은 박근혜, 문재인 정부 >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특질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 부정적 정서성은 전체 정부별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부정적 정서성이 나타나 박근혜 정부기간 언론기사에서 긍정적 정서성과 부정적 정서성이 모두 높은 양상이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1-2>에서는 <연구문제1-1>의 빈도분석이 보다 명확하게 통계적 차이로 검증되었다.

<연구문제 1-3>을 통한 2003년 이후 매해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북한’과 ‘통일’에 대한 태도는 동일하게 노무현 > 문재인 > 이명박 > 박근혜 정부 순으로 긍정적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사 언어의 긍정/부정 정서성이 높았던 반면, 여론 조사결과에서는 ‘북한’과 ‘통일’에 대한 태도가 가장 낮았다. 이러한 대국민 설문결과는 김정은의 새로운 등장과 핵실험 등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노무현 정부는 ‘북한’과 ‘통일’에 대한 국민의 태도는 가장 높았으나, 기사 언어의 긍정 정서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위 언어적 강도와 정서성에 있어서도 밝혀진 바

9) 2005년 8월 15일(8.15남북공동행사), 8월 26일~8월 31일(제 11차 이산가족상봉), 9월 13일~9월 16일(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10) 2006년 7월 5일(대포동 2호 발사), 10월 9일(북한 1차 핵실험) 발생

11) 2007년 2월 13일(제 4차 남북체육회담), 2월 27일~3월 2일(제 20차 남북장관급회담), 3월 27일~3월 29일(제 5차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4월 10일~4월 13일(제 8차 남북적십자회담), 5월 9일~5월 14일(제 15차 남북이산가족 상봉), 10월 4일(남북정상회담), 12월 5일(개성관광 개시)

와 같이 이 당시 남한과 북한의 남북관계 정책은 계속적으로 엇박자를 내면서 갈등적이었고, 이러한 결과가 기사 내 정서성 결과에서도 보여진다. 노무현 정부에서 긍정적 정서성이 낮은 또 하나의 원인은 그 당시 속칭 기성언론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강력했던 보수언론(조선, 중앙, 동아일보)과 노무현 정부와의 갈등으로 해석된다(서영남·박종민, 2008). 갈등은 매우 심한 상태였고, 이러한 언론 전반의 반정부 정서도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보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도 높다.

이명박 정부는 기사 언어의 긍정적 정서성이나 국민의 '북한'과 '통일'에 대한 태도 모두 매우 낮았던 것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다음 박근혜 정부기간에 '북한'과 '통일'에 관한 긍정과 부정의 정서 언론 기사가 모두 높은 양상은 그 당시의 남북관계에서 유추된다.¹²⁾ 일단 부정적 정서성은 2013년에서 2017년 사이 김정은 등장과 함께 시작된 빈번한 핵실험, 미사일 발사 및 대남도발¹³⁾이 원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간 또 하나의 남북관계 흐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거 북한 방문과 화해 의지를 전제로 한 2014년 1월 신년사에서 밝힌 '통일대박' 발언과 이어진 3월 28일 드레스덴 선언이었다. 이후 2015년 3월 통일준비위원회가 발족하였으나, 이런 흐름의 기본 전제는 남한 중심의 흡수통일이라는 전제가 드러나 화해무드는 급격히 꺾이게 된다. 그럼에도 이러한 박근혜 정부 방식의 남북한 화해 정책이 언론에서 특히 보수언론에서는 긍정적 정서성의 기사가 많아진 원인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는 기사 언어의 긍정적 정서성이 높고 국민의 '북한'과 '통일'에 대한 태도가 노무현 정부 다음으로 긍정적이었다. 문재인 정부에 관한 분석은 향후 자료를 포함한 추가적 분석과 해석이 필요하다.

다음 <연구문제 2-1>를 통해 분석한 정부별 '북한'과 '통일'이 포함된 정파적 언론(진보/보수) 내용의 언어적 강도, 정서적 표현 빈도, 정서의 방향성(긍·부정)을 살펴보면, 진보성향 언론의 언어적 강도와 정서적 빈도는 노무현 정부 초기 짧은 기간 보수성향보다 높은 언어적 강도를 보이다가 2006년 최저점으로 떨어졌고 2007년 급격히 회복 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12) 박근혜 정부시기 남북관계는 김정일 사망(2011년 12월) 이후 박근혜 정부의 시작(2013년 2월) 그리고, 김정은의 등장 등으로 김정은 정책에 대한 기대, 이명박 정부보다는 남북관계 회복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2013년 12월 장성택 공개처형과 계속된 북핵실험의 과정으로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13) 2013년 (2월 12일 북한 3차 핵실험, 3월 5일 정전협정 백지화), 2014년(3월 24일 북한 무인기 추락사건, 10월 10일 연천 대북전단 발원지 격파사건, 12월 15일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 2015년 (8월 4일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 8월 20일 서부전선 포격사건), 2016년 (1월 6일 북한 4차 핵실험, 2월 7일, 2016년 북한 광명성호 발사 사건, 2월 10일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9월 9일 북한 5차 핵실험), 2017년(9월 3일 북한 6차 핵실험, 10월 20일 391호 진호 나포사건, 11월 13일 판문점 귀순 북한군 총격 사건) 발생

기간에 포함세를 보였다. 이후, 박근혜 정부기간에 하강하여 2014년에 저점이었으며, 다시 상승하여 2016년에 고점을 이룬 후 현재는 다시 하강세 중이었다. 언어적 강도와 정서적 빈도를 통해 본 진보언론의 특징은 분석 결과(〈Figure 7, 8〉)에서도 보여지듯이 보수언론에 비해 북한의 대남정책과 행동, 남북관계 상황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보수성향의 언론의 언어적 강도와 정서적 빈도는 이명박 정부 초기 2009년 기점¹⁴⁾까지 상승하다 이후 점차적으로 하강하던 중 박근혜 정부 시작인 2013년¹⁵⁾까지 잠시 다시 상승한 후 2013년 이후부터는 꾸준히 하강세였다. 이 하강세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었다. 보수언론의 언어적 강도와 정서적 빈도의 특징은 정부의 정파성과 관계없이 꾸준히 진보언론에 비해 높았다는 것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진보언론의 언어적 강도와 정서적 긍정성이 보수언론에 비해 높았지만, 분석 기간이 5년 임기 전체가 아니어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연구문제 2-2〉 결과, 언어적 강도와 정서적 표현이 전반적으로 보수언론에서 높은 특징적 결과가 재검증 되었다. 다만, 문재인 정부기간에는 언어적 강도와 긍정적 정서성에서 진보언론이 보수언론에 비해 높았으나, 전체 16년 분석기간 중 약 2년만 분석한 결과이므로 향후 남은 임기자료를 포함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연구문제 3〉의 해결을 위해 2003년 이후 매해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인구학적 속성, 개인정치성향, 조사연도, 진보/보수 정부기간에 따른 '북한과 통일에 대한 태도'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북한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에서 '통일'에 긍정, 여성, 높은 교육수준, 높은 수입의 순서로 '북한에 대한 태도'에 더 긍정적 영향력을 보였다. 반면, 정부의 정파성, 개인의 높은 보수 정치성향, 조사의 최근성, 낮은 연령의 순서로 '북한에 대한 태도'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편, '북한'에 긍정, 높은 연령, 높은 교육수준의 순서로 '통일에 대한 태도'에 더 긍정적이었다. 반면, 여성, 개인의 높은 보수 정치성향, 조사의 최근성의 순서로 '통일에 대한 태도'에 더 부정적이었다.

분석 결과를 특징별로 살펴보면, 우선 여성은 남성에 비해 '북한'에는 더 긍정적이고, '통일'에는 더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한 정용하와 강성훈(2015), 박종범(2018)의 연구에서도 유사하였는데 여학생들이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 반면, 남학생은 적대 대상이나 '남측의 주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을 넘어 '전업주부'도 통일이익이 낮다고 인식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이전 연구(통일평화연구원, 2019) 결과와도

14) 2009년 4월 5일(광명성 2호 발사), 5월 25일(북한 2차 핵실험), 11월 10일(대청해진) 발생

15) 2013년 (2월 12일 북한 3차 핵실험, 3월 5일 정전협정 백지화).

일치하는 것이었다. 다만, 국민의 성별과 소득이 북한이나 통일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던 강주현(2013)의 연구도 있었고, 이런 결과가 객관적 사실이라 해도 북한에 대한 여성의 긍정적 태도는 남녀 간의 정서적 차이, 남성의 군복무, 여성의 정치 사회적 참여와 의식 향상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어 보다 세밀한 해석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높은 교육수준과 수입이 '북한'에, 그리고 높은 교육수준이 '통일'에 더 긍정적인 것은 남북한 평화적 공유 차원에서 긍정적인 결과였다. 그러나 최근에 올수록 '북한'과 '통일'에 부정적이고, 연령이 낮을수록 '북한'에 더 부정적인 결과는 남북한 정세에서 평화를 유지하여야 할 우리 사회 입장에서 한반도 미래 평화를 위해 심층적 고민이 필요한 결과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새로운 핵심적 결과들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의 '북한'과 '통일'에 대한 언어적 강도, 정서성은 정확하게 비슷한 시기에 '남북관계의 사건들', '남한에 대한 북한의 공·부정 행동, 그리고 그런 행동의 중대함 크기'와 관계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북한 주민 실태 보도 프레임이 정권의 정파적 특징과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분석된 이전 연구(하승희·이민규, 2012)연구와는 다소 상이하였다.

둘째, 노무현, 박근혜 정부와 같이 남북 당국 간 동상이몽 시절, 즉 남북관계 갈등이 있었던 시기에 보수와 진보언론의 언어적 강도와 정서성의 변화가 극심하였다. 이에 반해 이명박,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평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가장 새롭고 특이한 발견은 우리나라 언론이 기본적으로 북한,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 정서성을 더 강하게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이러한 현상은 진보언론보다는 보수언론에서 더 강하게 드러났다. 즉, 보수언론의 언어적 강도와 정서성이 진보언론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 정서성도 진보언론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 높았다.¹⁶⁾

여론조사 결과와 연관해서 해석하면, 조사가 이루어진 시기의 정부 정파성은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듯하였으나, '북한'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영향이 있었다. 즉, 진보정부 시기에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태도가 더 좋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요점을 시사하는 바 '북한'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국민의 태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만, 언론은 일관되게 보수언론이 진보언론에 비해 '북한'과 '통일'에 언어적 강도와 정서적 빈도, 긍정적 정서성이 높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러한 패턴은 문재인 정부 2년 이외 분석 기간 14년에 걸쳐 일반적인 특징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이 특정 정부, 사건 등에 의해 영향

16) 단, 본 연구에서 분석된 문재인 정부기간에는 언어적 강도와 긍정적 정서성은 진보언론 > 보수언론이었음.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특징은 보수언론이 ‘북한’이나 ‘통일’ 문제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기존 연구나 국민 인식과 전혀 다른 발견이며 사회과학적 반직관성(counter intuitiveness)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진 중 일부는 이를 ‘어쩌면 보수언론이 더 강한, 한국 언론의 ‘북한’과 ‘통일’에 대한 해바라기정서론’으로 다소 강하게 표현하기도 하였다. 왜 우리나라 언론이 ‘북한’과 ‘통일’이라는 의제에 있어 긍정적 정서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해석이 필요하다. 어쩌면 더 강한 긍정성을 보이고 있는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간에는 ‘북한’과 ‘통일’이라는 같은 주제에 대해 동상이몽적인 긍정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 아니라면 보수언론의 ‘북한’에 대한 긍정정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 정서일 뿐이며, 기사문장의 이면을 읽어야 하는 그들의 진심을 따로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면적 진심을 해석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본 연구의 방법론적인 한계일 것이다. 그러나 이면을 넘어선 표면적 긍정정서가 보수언론에서 높다는 사실 또한 새로운 진실이며 앞으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우리 사회 중요한 특징이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 수집·분석 방법을 활용해, ‘북한’과 ‘통일’에 대한 한국 언론의 언어적 강도, 정서적 빈도, 정서적 방향성을 사실상 전수조사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통계적 추론에 기댈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사실에 가깝다. 언론의 정파성에 따른 보도 프레임에 비교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특정 주제에 대해 진보언론은 진보적 프레임을, 보수언론은 보수적 프레임을 사용한다고 설명한다(이민규·김수정, 2006). 같은 맥락에서 정권별 언론의 보도 프레임을 비교한 연구들도 진보 정권에서는 진보언론이, 보수 정권에서는 보수언론이 친정부적인 프레임을 사용한다고 설명한다(송은지·이건호, 2014). 하지만, 본 연구결과 중에는 기존 연구에서 이론적 배경으로 이용한 프레이밍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지점들이 존재한다. 가령, 진보 정권인 노무현 정부 기간에 보수언론이 진보언론보다 북한, 통일에 대한 긍정적 정서성이 더 높다는 결과는 송은지와 이진호(2014)의 결과와 배치되는 결과이다. 전술하였듯 전수조사에 기초한 본 연구결과는 이론과 모델에 근거한 연역과 귀납의 추론과정과 이러한 이론 검증에 의해 적용되어온 언론의 프레이밍 개념을 관성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역사적 배경과 연계성 설명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와 이전 결과들의 추후 비교 연구도 의미 있을 듯하다.

또한 본 연구는 방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시대 평화를 위한 숙명 과제인 ‘북한’과 ‘통일’의 인식과 사회적 합의를 보다 객관적으로 재조명한 것에 의의가 크다. 다만, 본 연구결과를 위해 분석된 데이터 기간(2003.01.01.~2019.07.01.)이 문재인 정부의 전체 기간을 포함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통일’보다 ‘평화’를 강조하며 역동적인 남북관계를 모색한 기간이기에 향후 이 기간이 포함된 추가 연구의 의미도 크다고 하겠다. 더불어, ‘북한’과

‘통일’ 관련 연관어의 단어 유사도 분석을 통해, 정부별 언론 보도의 특징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는 추가 연구도 의미가 크겠다. 부디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에 대한 추후 심층적이고 활발한 논의가 미래 평화를 위한 새로운 또 하나의 시작이길 기대한다.

References

- An, J., Bae, J., Han, N., & Song, M.(2015). A study of 'Emotion Trigger' by text mining techniques. *Journal of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Systems*, 21(2), 69-92.
- Ban, H., & McCombs, M. E.(2007). Revisiting agenda-setting theory: A five-phases evolution model, *Communication Theories*, 3(2), 7-53.
- Ban, H.(2004). Analysis of political candidate attributes: Second-level agenda setting theory,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8(4), 175-197.
- Bowers, J.W.(1963). Language intensity, social introversion, and attitude change, *Speech Monographs*, 30(4), 345-352, DOI: 10.1080/03637756309375380
- Bradac, J.J., Bowers, J.W., & Courtright, J.A. (1979). Three language variables in communication research: Intensity, immediacy, and diversity.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5, 257-269.
- Choi, J. H., & Ha, J. H.(2016). News frames of Korean unification issues: Comparing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newspaper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Studies*, 24(2), 127-151.
- Choi, Y. J.(2004). Constructing candidate images: An experiment on second level agenda setting. *Media & Society*, 12(4), 117-144.
- Chung, Y. C., Lew, S. J., Cho, H. J., Lim, H. C., Kim, T. K., Kim, J. W., Kim, H. N., Lee, H. A., & Lim, S. R.(2013). Frame and network of public awareness about North Korea: Focused on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North Korean Studies Review*, 17(2), 329-363.
- Chung, Y.-H., & Khang, S.-H.(2015). Unification policy toward N. Korea of Park government and changes in awareness of university students: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the Roh government. *Journal of Koreanology*, 55, 137-168.
- Do, J.-E., & Na, E.-K.(2014). Message construal level and temporal distance effect of news media coverage of North-Korean issues on attitudes toward unification and perceived risk of war.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8(1), 381-410.
- Goldberg, Y., & Levy, O.(2014). Word2vec explained: Deriving Mikolov et al.'s negative-sampling word-embedding method. arXiv:1402.3722[cs.CL].
- Ha, S.-H., & Lee, M.-K.(2012). A news frame analysis by the South Korean press on the livelihoods of a North Korean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58, 222-241.
- Hamilton, M. A., & Stewart, B. L.(1993) Extending an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of language intensity

effects. *Communication Quarterly*, 41(2), 231-246, DOI: 10.1080/01463379309369882.

- Hamilton, M. A.(1998). Message variables that mediate and moderate the effect of equivocal language on source credibility.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17(1), <https://doi.org/10.1177/0261927X980171006>
- Handler, A.(2014). *An empirical study of semantic similarity in WordNet and Word2Vec*. University of New Orleans Theses and Dissertations.
- Hong, S. K., Ha, T. K., Son, K. J., & Lee, J. C.(2011). *A study on the status of news reports on North Korea: Kim Dae-jung administration after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security related in news reports*. Seoul: Korea Press Foundation.
- John W. B.(1963). Language intensity, social introversion, and attitude change. *Speech Monographs*, 30(4), 345-352, DOI: 10.1080/03637756309375380
- Jolly, J. P., & Reynolds, T. J.(1988). Application of the means-end theoretic for understanding the cognitive bases of performance appraisal.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41, 153-179.
- Jung, G. S., Kim, S., Moon, I. C., Song, Y. H., Jeong, D. J., Jo, D. J., Chun, J. H., Hwang, J. M., Kim, H. J., Lee, J. O., & Im, S. J.(2018). *2017 Unification consciousness survey*. Seoul: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Kang, J.(2013). A study on inter-Korean relations and public opinion on aid to North Korea in the period of Roh and Lee government. *21st century Political Science Review*, 23(3), 83-109.
- Kim, H. J., Kang, C. Y., Kim, B. S., Kim, B. R., Kim, H. J., Lee, S. W., Lim, K. H., & Choi, K. B.(2020). *2019 Unification consciousness survey*. Seoul: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Kim, H.-S.(2002). A surve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alues and the attitudes toward North Korean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6(1), 35-50.
- Kim, J., Kang, J., Kim, S., Kim, C., Park, W., Lee, Y., Choi, S., Choi, S., & Kim, S. (2019).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2003-2018*. Seoul: Sungkyunkwan University.
- Kim, J.-H.(2003). Editorial tone of major Korean newspapers toward the sunshine policy during the Kim Dae Joong government.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37(2), 197-218.
- Kim, J.-H.(2009). Conflicts in South Korea over North Korea and the US.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2, 140-161.

- Kim, M., Jang, H.-Y., Jo, Y.-M., & Shin, H.(2013). KOSAC: Korean Sentiment Analysis Corpus. In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650-652.
- Kim, S., Cho, H., & Kang, J.(2016). The status of using text mining in academic research and analysis methods.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Architecture*, 13(2), 317-329.
- Kim, Y. J.(2014). An analysis of the Park Geun-hye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Th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Communication*, 17(2), 31-55.
-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2020).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released its findings on the KINU Unification Consciousness Survey 2020*. Retrieved 9/29/17 from <https://www.kinu.or.kr/brd/board/630/L/menu/399?brdType=R&thisPage=1&bbIdx=57635&searchField=&searchText>
- Lee, C. H.(2008). Achievements and evaluation of Roh Moo-hyun government's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Communication*, 11(1), 73-97.
- Lee, C.-H.(2013). South-North Korean relations during the Lee Myung-bak government era: Analysis and evaluation on 'North Korea policy for mutual benefits and common prosperity'. *Th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Communication*, 16(2), 225-266.
- Lee, G., Yoo, C. Y., & McCombs, M. E.(2007). The second level agenda setting effects of environment issue : Regarding competing attributes in global warming issu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1(2), 153-179.
- Lee, H., & Park, J. (2018). Suggesting SNS users' political partisan behavioral model in Korea: Application of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theory of spiral of silenc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9(3), 423-451.
- Lee, H.-H., Lee, J.-K., Choi, J.-H., Cheong, S.-H., & Kang, K.-S.(2015). How does the Korean press see the Korean unification? Focusing on the content analysis of news coverage about Korean unification by each regime, type of media, and press.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9(2), 220-259.
- Lee, M.-K., & Kim, S.-J.(2006). A comparative analysis over news framing of the abolition of the family headship (hoju) system: Examining three major Korean dailies: *Chosun, Kukmin, Hankyoreh*.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34(34), 132-160.
- Lee, S. H.(2018). Moon Jae-in government'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based on five key words.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13(1), 173-186.

- Lee, S.-R. & Rhee, J. W.(2014). Frame contest and utilization of unnamed sources in news media.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8(3), 378-407.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2018). *Perception survey on inter-Korean relations(1-3th)*. Sejong.
- Ministry of Unification(2019). *Unification white paper*. Seoul: Ministry of Unification.
- Naver(2018). *Two ranking models in news search 'Related order'*, Retrieved 9/29/17 from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aver_search&logNo=221107717229&parentCategoryNo=&categoryNo=47&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List
- Park, B.-J.(2018). A study of unification and North Korea recognition of university students. *Unification Strategy*, 18(2), 79-109.
- Park, H. W.(2001). *North Korea policy and state relations in the press: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hosunilbo and Hankyoreh shinmun's report*. Seoul: Korea Press Foundation.
- Park, J. (2018). Past presidents and first ladies expressed in media since 2000: The dictionary method computational text analysis by the adjective check list.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2(4), 7-43.
- Park, J., Kwon, G., Kim, P., Park, J., & Cho, J. (2017). News release of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media coverage by partisanship: The analysis of four major issues in 2014. *Journal of Social Science*, 43(2), 115-149.
- Park, S. E.(2012). The evaluation of Lee Myung Bak administration's inter-Korean policy and upcoming administration's direction of the inter-Korean policy. *Military Development & Research*, 6(1), 247-278.
- Park, Y. H., Kim, D. S., Park, I. H., & Jung, K. W.(2013). *Status of United States unification public diplomacy in Korea* (General Report on Collaborative Research 13-26-02).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Renwu, W., Jiayi, S, & Chuanbao, C.(2017). Application of sentiment analysis based on Word2vec in brand awareness.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 22.
- Rhee, J. W.(2004). The impacts of the mass media and the interpretive frames on individuals opinions about the engagement policy.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8(1), 28-56.
- Rong, X.(2016). Word2vec parameter learning explained. arXiv:1411.2738[cs.CL]
- Seo, Y., & Park, J.(2008). Korean governments' press relations by press arbitration case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2(2). 5-39.

- Seok, H. h., Kim, D. S., Jang, D. J., Park, S. N., & Shim, S. J.(2010). *Korean social trends 2010*. Daejeon: Statistics Korea
- Shin, H., Kim, M., & Park, S.(2016). Modality-based sentiment analysis through the utilization of the Korean sentiment analysis corpu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74, 93-114.
- Shin, J.(2013). North Korea policy of Kim Dae-jung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s and domestic politics: The problems lie with not 'Outside' but 'Inside'. *Korea and World Politics*, 29(2), 1-35.
- Song, E. J., & Lee, G.(2014). Analysis of news coverage about president's interference with electoral process: For the period from president Young Sam Kim to president Myung Bak Le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8(3), 228-250.
- Wilson, Theresa Ann (2008). *Fine-grained subjectivity and sentiment analysis: Recognizing the intensity, polarity, and attitudes of private stat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 Yi, S. W.(2017). Impact of major military event in inter-Korean relationship with time-series analysis. *Dispute Resolution Studies Review*, 15(3), 111-144.

최초 투고일 2020년 9월 27일
 게재 확정일 2020년 11월 30일
 논문 수정일 2020년 12월 2일

부록 I. 국문 참고문헌

- 강주현 (2013). 노무현 이명박 정부시기 남북관계 및 교류와 대북지원 여론 분석. <21세기정치학보>, 23(3), 83-109.
- 김문형·장하연·조유미·신효필 (2013). KOSAC(Korean Sentiment Analysis Corpus): 한국어 감정 및 의견 분석 코퍼스.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60: 650-652.
- 김성근·조혁준·강주영 (2016). 학술연구에서의 텍스트 마이닝 활용 현황 및 주요분석기법. <정보화연구>, 13(2), 317-329.
- 김영재 (2014).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정치정보연구>, 17(2), 31-55.
- 김재한 (2009). 북한 및 미국 관련 남남갈등의 변화추세: 조선일보 및 한겨레신문 사설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2, 140-161.
- 김재홍 (2003).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언론논조와 국민여론의 비교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7(2), 197-218.
- 김혜숙 (2002). 대학생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북한 사람 및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6(1), 35-50.
- 네이버 (2018). 뉴스검색 '관련도순'의 두 가지 랭킹모델. Retrieved 9/29/17 from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aver_search&logNo=221107717229&parentCategoryNo=&categoryNo=47&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List
- 도정은·나은경 (2014). 북한 관련 언론 보도의 메시지 해석 수준 및 수용자의 시간적 거리감이 통일에 대한 태도와 전쟁 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8(1), 381-410.
- 문화체육관광부 (2018).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조사(1-3차). Retrieved from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8302>
- 반현 (2004). 선거후보자의 이미지 특성에 관한 연구 : 2차 의제설정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8(4), 175-197.
- 반현 (2007). 의제설정 이론의 재고찰 : 5단계 진화 모델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이론>, 3(2), 7-53.
- 박상익 (201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군사발전연구>, 6(1), 247-278.
- 박종민 (2018). 2000년 이후 언론에 표현된 역대 대통령과 영부인: 컴퓨터 텍스트 형용사 분석. <한

- 국언론학보》, 62(4), 7-43.
- 박종민·권구민·박진홍·김필수·조재형 (2017). 이념성을 고려한 보도자료와 언론보도의 프레임 비교: 2014년 국방부 대표쟁점 분석, 《사회과학연구》, 43(2), 115-149.
- 박종범 (2018). 대학생의 통일과 북한 인식에 관한 연구, 《통일전략》, 18(2), 79-109.
- 박홍원 (2001). 대북정책과 언론-국가 관계: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보도내용 비교분석. 서울: 한국언론재단.
- 서영남·박종민 (2008). 문민, 국민, 참여정부의 언론중재 현황을 통한 정부의 대언론관계. 《한국언론학보》, 52(2), 5-39.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서베이리서치센터 (2019). 2003-2018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송은지·이건호 (2014). 대통령의 선거개입 이슈 보도. 《한국언론학보》, 58(3), 228-250.
- 신종대 (2013).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국내정치: 문제는 '밖'이 아니라 '안'이다. 《한국과 국제정치》, 29(2), 1-35.
- 신희필·김문형·박수지 (2016). 한국어 감정분석 코퍼스를 활용한 양상정보 기반의 감정분석 연구. 《언어학》, 74, 93-114
- 안주영·배정환·한남기·송민 (2015).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감정 유발 요인: 'Emotion Trigger'에 관한 연구.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지》, 21(2), 69-92.
- 이건호·유찬윤·맥스웰 맥콕스 (2007). 환경문제의 2차 의제설정효과 : 지구 온난화 이슈 내 서로 다른 속성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1(2), 153-179.
- 이민규·김수정 (2006). 호주제 폐지에 대한 뉴스 프레임 비교 연구: 조선일보, 국민일보,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34(34), 132-160.
- 이상률·이준웅 (2014). 프레임 경쟁에 따른 언론의 보도 전략. 《한국언론학보》, 58(3), 378-407.
- 이성우 (2017). 남북한의 상호갈등 및 협력관계의 변화: 빅데이터를 이용한 시계열 분석 1979~2013. 《분쟁해결연구》, 15(3), 111-144.
- 이승현 (2018).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다섯 가지 핵심어를 중심으로. 《의정논총》, 13(1), 173-186.
- 이준웅 (2004). 언론 매체 이용 및 해석적 틀이 통일 및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론학보》, 48(1), 28-56.
- 이창현 (2008).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성과와 평가. 《정치정보연구》, 11(1), 73-97.
- 이창현 (2013). 이명박 정부시대의 남북관계: 분석과 평가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정

- 치정보연구>,16(2), 225-266.
- 이화행·이정기·최진호·정성호·강경수 (2015). 한국언론은 통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정권, 미디어 유형, 개별 언론사별 통일보도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9(2), 220-259.
- 이현지·박종민 (2015). 한국형 SNS 사용자 당파적 정치 행동이론의 제안 : 계획된 행동이론과 침묵의 나선이론의 비판적 적용. <한국언론학보>, 59(3), 423-451.
- 정용하·강성훈 (2015). 박근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과 대학생의 남북관계 인식변화: 노무현 정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55, 137-168.
- 정영철·류석진·조희정·임현진·김태균·김종원·김한나·이현아·임소라 (2013). 대북 인식의 프레임과 네트워크: 개성공단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7(2), 329-363.
- 최영재 (2004). 정치인의 이미지 형성에 관한 실험연구 : 2차 의제설정 이론의 검증과 확장. <언론과 사회>, 12(4), 117-144.
- 최종환·하진홍 (2016). 통일 관련 언론보도 논조 및 프레임 분석 연구: 김대중 및 박근혜 정부의 보수와 진보신문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4(2), 121-145.
- 통계청 (2010). <한국의 사회동향>. 서울: 통계개발원.
- 통일부 (2019).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 통일연구원 (박영호 김동수 박인휘 정기웅, 2013). 한국의 대미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26-02. 서울: 통일연구원.
- 통일연구원 (2020). 국민 통일의식 조사. 보도자료: 2020.6.25
- 통일평화연구원 (2018).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통일평화연구원 (2020).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하승희·이민규 (2012). 북한주민 생활 실태에 관한 국내 신문보도 프레임연구: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58, 222-241.
- 홍성기·하태경·손광주·이종철 (2011). <북한관련 뉴스보도 현황연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부록 I. 표1 (국문) II

표1. 2003년 이후 대한민국 정권의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정부	대북정책	남북교류	북한도발사건
노무현 (2003. 02.25. ~ 2008. 02.24.)	<평화번영정책>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 공동번영 실현 -동북아 공동번영 추구 *김대중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 포용정책)을 계승 남북한 경제협력 활성화, 경제공동체 구성	2005 - 9.19공동성명/개성공단 건설/ 남북경협사무소 개소/ 남북한관계발전에 관한 기본법률 제정.공포 2007.10.04. 제2차 남북정상회담:2007 남북정상선언 채택	2003.01.10. 북 핵확산방지조약(NPT)탈퇴 2005.02.10. 핵무기 보유 선언 2006.10.09. 북한 1차 핵실험
이명박 (2008. 02.25. ~ 2013. 02.24.)	(비핵.개방.3000 구상)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실용과 생산성의 원칙 -철저한 원칙과 유연성의 원칙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투명성의 원칙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조화의 원칙 *'선 북한변화론', 경제중심의 연계주의 전략, 대북 압박성 선풍정책' 핵심적 기조	2008.03.27. 북한 개성공단 내 경제협력사무소 남한 당국자 추방 2010. ~ 급격한 군사적 대결과 적대적 단절국면 지속 2011.07.22. 남북 비핵화회담 개최 2011.12. 김정일 사망 2012.04 김정은 체제 출범	2008.07.11.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사건 2009.04.05. 광명성2호 발사 2009.05.25. 북한 2차 핵실험 2009.11.10. 대청해전 발생 2010.03.26. 천안함 피격 사건 2010.11.23. 연평도 포격 도발 2012.04~ GPS 교란/ SNS 대선조작 시도 등 2013.02.12. 북한 3차 핵실험
박근혜 (+황교안 권한대행) (2013. 02.25. ~ 2017. 05.09.)	2014. 신년기자회견- 통일대박 발언(1.6),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선언(2.25)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 구상 발표(3.28) -신뢰형성을 통한 남북관계의 정상화/ 통일 인프라 강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추구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의 선순환 모색 *대북정책 없는 통일정책이며 '흡수통일' 전제...등 비판 받음	2014 김정은 정권 수뇌부(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	2016.01.06. 북한 4차 핵실험 2016.02.07. 북한 광명성호 발사 사건 2016.09.09. 북한 5차 핵실험
문재인 (2017. 05.10. ~ 현재)	<대화와 압박의 두 트랙 정책> -새로운 평화정책의 적용 -협치의 지향 -관여정책의 확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바탕/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압박정책 병행	2018.0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2018.09.19. 제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공동선언 2018. 제1차 북미정상회담	2017.09.03. 북한 6차 핵실험 2019. ~ 수차례 단거리 미사일 발사

부록 I. 표8 (국문) III

표8. 정부별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친 주요사건

년도	2003.02. ~ 2008.02.	2008.02. ~ 2013.02.	2013.02. ~ 2017.05.	2017.05.10. ~ 현재
남북 관련 주요 사건	<p>2005년 8월 15일(8.15남북공동행사), 8월 26일~(제 11차 이산가족상봉), 9월 13일~(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p> <p>2006년 7월 5일(대포동 2호 발사), 10.09. 북한 1차 핵실험</p> <p>2007년 2월 13일(제 4차 남북체육회담), 2월 27일(제 20차 남북장관급회담), 3월 27일~(제 5차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4월 10일~4월 13일(제 8차 남북적십자회담), 5월 9일~5월 14일(제 15차 남북이산가족 상봉), 10월 4일(남북정상회담), 12월 5일(개성관광 개시)</p>	<p>2008년 3월 27일(북한 개성공단 내 경제협력사무소 남한 당국자 추방), 7월 11일(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사건)</p> <p>2009년 4월 5일(광명성2호 발사), 5월 25일(북한 2차 핵실험), 11월 10일(대청해전 발생)</p> <p>2010년 3월 26일(천안함 피격 사건), 11월 23일(연평도 포격 도발)</p> <p>2012년 4월(GPS 교란/SNS 대선조작 시도 등)</p> <p>2013년 2월 12일(북한 3차 핵실험), 3월 5일(정전협정 백지화)</p>	<p>2014년 3월 24일 북한 무인기 추락사건, 10월 10일 연천 대북전단 발원지 격파사건, 12월 15일 한국수력원자력 해경 사건, 2015년 (8월 4일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 8월 20일 서부전선 포격사건)</p> <p>2016년 1월 6일(북한 4차 핵실험), 2월 7일(북한 광명성 4호 발사 사건), 2월 10일(개성공단 가동 중단), 9월 9일(북한 5차 핵실험)</p>	<p>2017년 9월 3일(북한 6차 핵실험)</p> <p>2018년 4월 27일(남북정상회담 관문점선언), 9월19일(제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공동선언), 6월 12일(제1차 북미정상회담)</p> <p>2019년 이후~ (수차례 단거리 미사일 발사)</p>
대북 정책	노무현 정부 〈평화번영정책〉	이명박 정부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박근혜 정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문재인 정부 〈대화와 압박의 두 트랙 정책〉

대한민국은 지난 20년간 '북한'과 '통일'을 어떻게 보았는가? 언론 보도 빅데이터 분석 및 국민 인식 종단연구

박종민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정영주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박사수료)

주호준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수료)

김현우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

본 연구는 2003년 이후 '북한'과 '통일'이 포함된 네이버 내 약 40만여 개 기사의 언어 형태소 및 감성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노무현, 이명박, 박근혜+황교안, 문재인 정부)와 정파적 언론(진보/보수)에 따른 기사 내 언어적 강도, 정서적 표현 빈도, 정서의 방향성(긍·부정)의 차이가 분석되었다. 더불어 2003년 이후 매해 1,300명 대상 17년간의 대국민 인식 설문 분석을 이용하여 인구학적 속성, 개인 정치 성향, 조사연도, 진보/보수 정부 시기에 따른 '북한과 통일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노무현 정부기간에 언어적 강도와 정서적 빈도 변화가 많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노무현 정부 다음으로 언어적 강도와 정서적 빈도가 높았다. 그러나 긍정적 정서량은 박근혜, 문재인, 노무현, 이명박 정부 순서로 많았다. 박근혜 정부기간 언론기사에서 긍정적 정서성과 부정적 정서성이 모두 높은 양상인 반면, 대국민 조사에서는 '북한'과 '통일'에 대한 태도(노무현 > 문재인 > 이명박 > 박근혜 정부)가 가장 낮은 시기였다. 여론 조사 결과 관련, 여성은 남성에 비해 '북한'에 대해서는 더 긍정적이고, '통일'에 대해서는 더 부정적이다. 교육수준과 수입이 높을수록 '북한'에 긍정적,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통일'에 긍정적이었다. 최근에 올수록 '북한'과 '통일'에 부정적이고, 연령이 낮을수록 '북한'에 더 부정적이었다. 정부의 정파성은 '북한'에 대한 태도에만 영향을 주어 진보정부 시기일수록 국민들은 '북한'에 긍정적이었다. 언론의 정파성에 따른 특징을 보면, 진보언론이 보수언론에 비해 북한의 대남정책과 행동, 남북관계 상황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가장 특이한 발견은 언론 전체가 북한,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 정서성이 강하며, 보수언론의 언어적 강도와 정서성이 진보언론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 정서성도 진보언론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 높았다. 이런 결과는 위 진보정부에서 국민이 '북한'에 긍정적인 결과와 비교해보면, 적어도 남북관련 의제는 남북정부가 이끌며, 언론이 의제를 선도하기 어려움이 유추된다. 관련된 해석이 논의되었다.

핵심어: 북한, 통일, 감성어 분석, 종단연구, 국민인식